

발행처 천주교 서울대교구 | 발행인 정순택 |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 인쇄 가톨릭출판사
전화 02)727-2114 |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문화홍보국



입당송 | 시편 98(97),1-2 참조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주님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 드러내셨네. 알렐루야.

제1독서 | 사도 14,21-27

화답송 | 시편 145(144),8-9.10-11.12-13ㄴ(◎ 1 참조)

◎ 저의 임금이신 하느님,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미하나이다.
(또는 ◎ 알렐루야.)

○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하시며,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넘치시네. 주님은 모두에게 좋으시며, 그 자비 모든 조물 위에 내리시네. ◎

○ 주님, 모든 조물이 당신을 찬송하고, 당신께 충실한 이들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당신 나라의 영광을 노래하고, 당신의 권능을 이야기하나이다. ◎

○ 당신의 위업과 그 나라의 존귀한 영광, 사람들에게 알려나이다. 당신의 나라는 영원무궁한 나라, 당신의 통치는 모든 세대에 미치나이다. ◎

제2독서 | 묵시 21,1-5ㄴ

복음환호송 | 요한 13,34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

복음 | 요한 13,31-33ㄴ.34-35

영성체송 | 요한 15,1.5 참조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알렐루야.



|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도...

김한수 토마스 신부 | 종로성당 주임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에서 회의를 마치고 시설을 견학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전시물을 둘러보던 와중에 걸음을 멈추고 호흡을 가다듬어야 했습니다. 안중근 토마스가 뒤편 감옥에서 썼다는 글, '경천(敬天)'을 만났습니다. 짧은 약지의 손도장이 찍혀 있는 그의 글, 사진으로만 보던 그 글씨를 마주 대합니다. 선물 같은 순간입니다. 그의 글씨 앞에 멈춰 한참 동안 마음의 흔들림을 겪습니다. 하느님 법을 따르는 가톨릭 교인의 신앙과 민족의 해방을 위한 헌신 사이에 겪었을 고뇌를 상상해 봅니다. 자기 삶을 이끌었던 '경천애인(敬天愛人)'의 계명이 자기 목숨을 내어 주는 헌신에 까지 이르게 했으리라 여겨집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감내하며 택한 방식일 것이라 감히 짐작하며 감탄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가는 계명이다. 둘째도 이와 같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마태 22,37-39) ‘경천애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습니다. 율법과 예언서의 원천인 십계명만 보더라도 제3계명까지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법으로, 4계명부터는 이웃을 사랑하는 법으로 귀결됩니다. 그렇게 구약의 백성, 신약의 백성 모두가 하느님 법으로 간직합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경천애인의 삶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미 잘 알고 있기에 전혀 새롭지 않은 계명을 새로운 계명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요한 13,34)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 시기를 떠올리면 그 새로움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새로운 계명입니다. 당신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는 계명은 분명 새롭습니다. 동시에 두렵기도 합니다. 내 나름대로, 내 상황에 맞게, 내 능력껏 사랑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당신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은 그래서 새롭고도 두렵습니다. 수난과 죽음을 지켜보았고, 절망을 희망으로 변화시키는 하느님의 힘을 당신을 통해 실감합니다. 당신이 하느님과 나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있는데, 것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은 정말 새롭지만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위대한 인물들만이 실현 가능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말씀을 되새겨 봅니다. 그 말씀의 가능한 지점을 살펴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당신처럼 사랑할 수는 없지만, 나도 나름대로 사랑하렵니다. 나만 사랑받으려 하기보다, 나도 사랑하며 살아가렵니다.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나도 나누렵니다. 그렇게 새로운 계명을 나름 실현해 나가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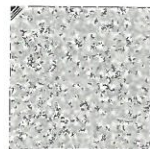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요한 13,35)

세찬 비바람도 거대한 태풍도 넘어뜨리지 못한 제주도의 담벼락은 그렇게 오랜 시간을 버텨 왔습니다. 어우러지면, 서로 의지하면 이뤄내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스승님께서 그 힘을 나타내는 단어를 알려주셨습니다. ‘사랑!’ “서로 사랑하여라.”



유별남 레오폴도 | 가톨릭사진가회



홍진호 제노 | 첼리스트

까까머리 훈련병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던 대학교 신입생 시절, 이제 막 적응한 학교와 친구들을 뒤로하고 1학년 1학기를 마치자마자 군 입대를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입대에 교수님도 친구들도 적잖이 당황해했지만,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다녀오라는 아버지의 권유와 악기 연주자로서 출퇴근 가능한 군 복무 배치의 고민의 여지 없이 입대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군 입대를 한 달여 앞두고, 배낭여행을 떠났습니다. 당시 너도나도 유행처럼 다니던 분위기에 저 또한 용기를 내어, 첫 학기에 아르바이트로 모았던 돈으로 독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준비 없이 무모하게 떠난 여행이라 크고 작은 사건 사고도 많았지만 여행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된 마냥 자존감과 성취감은 최고조에 달했고 멋있는 남자가 되어 간다는 착각에 빠져 입대까지 이어지는 여정에 꽤 만족했던 것 같습니다.

입국을 하고 며칠 뒤 남자답게(?) 쿨한척 뒤도 돌아보지 않고 훈련소에 입소해서 문제없이 훈련을 받기 시작했는데, 2주 차에 접어들며 몸에 이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휴식 없이 입대까지 이어진 무리한 일정 때문인지 그만 심한 감기·몸살 증상이 왔습니다. 경계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동기가 고열과 오한으로 괴로워하며 자고 있는 저를 발견했고, 저는 결국 중대 의무실로 옮겨졌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병상에서 수액을 맞고 있었고 이제야 살 것 같다는 안도감을 느끼려는 찰나, 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눈을 뜨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일반 병사들과 의무병들은 구경거리라도 생긴 마냥 하나둘 모여 저를 둘러싸고 폭언을 퍼부으며 갈굼(1)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몸이 아픈 게 죄가 되는구나. 여기가 지옥이구나.' 괴로워하며 잠깐이라도 혼자 있을 방법을 찾아 어렵게 허락을 구하고 화장실로 몸을 피했습니다. 소음에서 자유

로워진 저는 거울 속에 비친 저의 모습 - 주삿바늘을 꽂고 서 있는 까까머리 훈련병을 보고 그만 서러움에 쏟아지는 눈물을 삼켰고, 저도 모르게 '하느님!' 하고 입 밖으로 소리를 내어 그분을 찾았습니다. 인생에 처음이었습니다. 불루랄라 모든 게 순조롭고 행복했던 시간 속에서는 찾지도, 부르지도 않던 하느님을 지옥 같은 상황이 되어서야 찾는다는 것이 그렇게 죄스럽게 느껴졌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하느님'을 찾았다고 해서 그 뒤에 상황이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제가 그분을 간절하게 부른 그 순간부터 하느님은 남아 있던 훈련 기간 내내 저와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호된 경험을 하고 앞으로는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는 굳은 결심을 했지만 부끄럽게도 여전히 힘들 때만 기도를 하고 기쁠 때는 찾지도 않는 경솔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반성하며 행복한 순간 또한 하느님과 함께 나누리라는 또 한 번의 다짐을 하게 됩니다.

한컷 묵상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서로
사랑하세나



류상애 아녜스 수녀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 대구관구



가톨릭 신자들을 위한 가톨릭 신학 17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조한규 베네딕토 신부 | 가톨릭대학교 조직신학 교수

사제 서품 받기 전 사제 후보자는 서품 성구(聖句)를 정하는데, 사제 삶의 지침이자 이정표 같은 것입니다. 저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길, 진리, 생명”을 선택했습니다. ‘길’이란 ‘도로’와 다릅니다. 도로는 인간이 빨리 가기 위해, 편히 가기 위해 만든 인공적인 것입니다. ‘길’은 인간이 오랫동안 거쳐 간 흔적이고, 여기에는 인간의 삶이 함께합니다. 옛말에 물이 흐르면 강이 되고, 사람이 걸으면 길이 된다고 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하고 본시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요한 18,38 참조) ‘진리’의 그리스어 단어는 ‘알레테이아 (aletheia, ἀληθεια)’입니다. a-는 반대를 의미하는 접두사이고, lethe는 망각을 의미합니다. 진리, 즉 ‘알레테이아’는 ‘잊혀지지 않는 것’, ‘언제나 그대로인 것’을 의미합니다. 진리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옳은 것입니다. 본시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지만, 평소에 “나는 진리이다.” (요한 14,6 참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올바른 진리는 오직 하느님이신데, 하느님은 말씀을 통해 당신을 알려주시고, 구원으로 이끄십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 8,32)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 안에 당신의 숨(=영, 정신)을 불어 넣어 주셨고, 인간은 하느님 닮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영적이고 정신적인 존재인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였습니다. 인간은 하느님으로부터 자유를 선물 받았지만, 자유의 남용과 불순종이라는 원죄 때문에 최초의 순수한 영혼이 손상되었고, 하느님의 은총과 도움이 있

어야만 회복되고 완성될 수 있습니다. 오직 진리이신 하느님 말씀이 인간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이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입니다.

어떻게 진리를 만나고 깨달을 수 있을까요? 진정한 자유, 즉 인간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요한 8,31-32 참조) 예수님 안에 머물기 위해 예수님 말씀을 자주 듣고, 머리와 가슴에 새겨야 하고, 무엇보다 그분 몸을 내 안에 모시고 일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이란 내 힘으로 무언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내 안에서 무언가 하시도록 조용히 머물고 협조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위대한 능력을 가진 것 같지만, 자기 머리카락 한 올 걸거나 희게 할 수 없는 힘없고 나약한 존재이며, 언제나 죽음을 앞둔 존재입니다.

‘삶은 낯선 여인숙에서의 하룻밤과 같다.’ 아빌라의 대 테레사 성녀가 하신 말씀인데, 이는 구약의 지혜서 5장 14절의 (삶은) “단 하루 머물렀던 손님에 대한 기억”이란 구절에 근거합니다. 이 말씀은 인간 삶이 얼마나 순간적이고, 찰나(刹那)이며, 금방 사라지는 것인지 알려줍니다. 인간 삶이 속절없이 허무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이 말씀은 동시에 하느님의 영원하심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느님께는 천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습니다. (시편 90 참조) 하느님은 영원하시고, 하느님 말씀은 언제나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구원으로 이끄는 길, 진리, 생명입니다. 이분에게 우리 삶의 길과 목적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6,68)



하느님의 백성이 함께하는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

지구의 부르짖음에 어떻게 응답할까?

대중교통 이용과 육식 줄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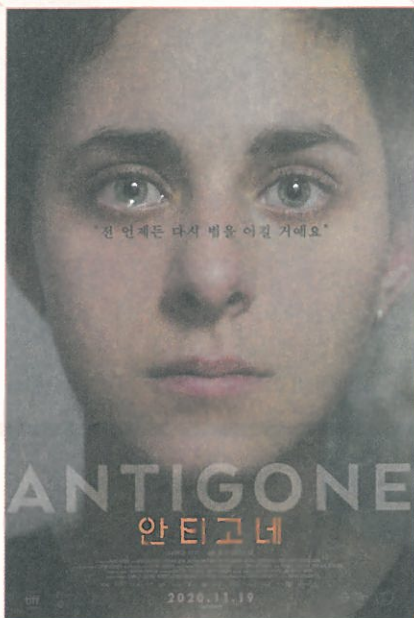
백종연 바오로 신부 | 환경사목위원회 위원장

회칙 「찬미받으소서」는 지구의 부르짖음에 우리가 즉시 응답할 것을 요구합니다. 바로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고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일을 통해서 말이죠. 먼저 국가적 차원에서 화석 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태양광, 풍력 등을 이용한 재생에너지의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기후위기의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일이 시급합니다. 가정에서도 재생에너지를 이용하고, 개인적으로는 차 없이 살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육식을 줄이는 것이 지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데 가장 또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시에서는 대중교통 이용이 비교적 편리합니다. 다만, 아직도 장애인을 비롯하여 노약자들이 이용하기에 쉽지 않은 점들이 남아있어 빠른 개선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걷기에 좋은 인도를 더 넓게 마련하고, 자전거를 어디서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의 구조를 바꾸어 나갈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비장애인들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용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습니다. 물론 편하고 익숙한 승용차 운행 빈도를 당장 급하게 줄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게는 자가용차 이용이 불가피하기도 합니다. 우선 우리 신앙인들이 성당에 오고 갈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걸어서 이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성당 마당도 기도와 친교의 장으로 더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전 지구적 온실가스 배출량의 15%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축산업계에서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장식 축산업의 열악한 동물복지 문제에도 점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복지뿐만 아니라 소중한 생명을 희생하여 인간의 식량이 되는 가축들도 사는 동안에는 그 권리를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돌보는 것이 인간에게 맡겨진 역할이라는 것을 점점 더 많은 분이 의식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변성할 권리를 창조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지구에는 그 피조물들의 다양성이 점점 감소하고 있으며 이미 대멸종의 시대에 들어섰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인간과 가축이 지구에 존재하는 척추동물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야생동물의 수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모든 이가 걸어 다녀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이가 채식을 해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 우리 중 많은 이는 더 걷고 덜 먹으며 살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의 모후이신 성모님께서 “땀방 받는 가난한 이들과 인간의 힘으로 황폐해진 이 세상의 피조물 때문에 지금도 슬퍼하고 계십니다.”(「찬미받으소서」, 241항) 이 성모성월에 우리가 모두 화석 연료를 덜 사용하고 육류를 덜 섭취하는 선택을 통해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성모님의 전구를 청합시다.



영화 '안티고네'

비극은 누가 만듭니까?

이대현 요나 | 국민대 겸임교수, 영화평론가

그리스 비극
(悲劇)을 인간 세
상으로 끌고 내
려온 사람은 소

포클레스였습니다. 인간을 무대에 세움으로써 이야기에 끼치지 않는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비극은 인간 세상에 대한 성찰과 교훈으로써 언제나 그 시대 속으로 들어가 새로운 이야기와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슬러 걷는 자’란 뜻의 『안티고네』도 그렇습니다. 오이디푸스의 딸이자 여동생인 안티고네의 용기와 선택, 비극을 통해 어리석은 인간과 법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과 비판을 담아냅니다. 안티고네는 ‘반역자의 시신은 새 떼와 개 떼의 밥이 되게 버려두라.’는 외삼촌인 크레온 왕의 포고령을 어기고 큰오빠인 폴리네이케스의 시신을 거두어 장례를 치릅니다. 그녀에게 오빠의 시신을 거두는 일은 가족을 사랑하는 ‘운명의 선택’이며, ‘신의 변함없는 불문율’입니다. 그녀는 한 인간(크레온)의 의지가 두려워 신에게 벌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반면 크레온 왕은 스스로를 가장 이성적, 이상적 존재라고 믿는 독재자로 ‘애국’을 내세워 누구든 무조건 명령(법)을 따르라고 소리칩니다. 그런 아버지를 보며 안티고네의 약혼자이기도 한 아들 하이몬과 주변 사람들은 한탄합니다. “판단해야 할 사람이 잘못 판단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가깝고 먼 미래에도, 과거에도 유효하리라, 인간의 성공에는 재앙이 따르게 마련인 법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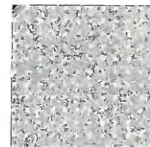
크레온의 비극은 안티고네는 물론 자신의 아내와 아

들까지 목숨을 끊는 것으로 끝납니다. ‘분별없는 생각의 가혹하고도 치명적인 실수’가 빚은 비참한 파멸로 ‘인간에게는 어리석음이 가장 큰 재앙임을, 지혜야말로 으뜸가는 행복’임을 2,500년 동안 사람들에게 각인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앙은 모습만 다를 뿐,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피 데라스페 감독의 영화 <안티고네(Antigone)>에서 비극의 주인공은 할머니와 두 오빠, 여동생과 함께 알제리에서 캐나다로 이주한 열일곱 살의 소녀 안티고네(나에마 리치 분)입니다. 마약에 연루된 큰오빠가 경찰의 총에 죽고, 작은오빠까지 체포되어 추방당할 위기에 처하자, 그녀는 작은오빠를 감옥에서 탈출시키고 대신 갇힙니다.

그녀는 “심장이 시킨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의 안티고네가 그랬듯이 인간의 법이 아닌 마음의 법(신의 법)을 따름으로써 ‘산 채로 무덤에 갇히는’ 운명을 맞은 것이지요. 안티고네에게 진실은 가족입니다. 인간의 법은 영혼이나 감정이 없기에 안티고네의 심장이 시킨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인간이 만든 편견과 독선, 차별과 오만의 법은 신(하느님)의 법을 따르려는 그녀에게 역시 비극적 결말을 강요합니다.**

그리스 비극에서 코러스(합창단)처럼 영화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SNS로 그녀를 응원하고, 거리에서 그림과 치장으로 시위를 하고, 법정에서 판사를 조롱하지만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안티고네는 할머니, 다시 체포된 작은오빠와 함께 또 다른 ‘무덤(알제리)’으로 쫓겨납니다. 예언자 테이레시아스의 말처럼 예나 지금이나 혼자, 특히 사회적 약자의 힘으로는 마음과 인간의 법 사이의 싸움은 풀 수가 없고, 안티고네의 비극은 반복될 것입니다.



사랑과 경건함이 가득 담긴 성상 앞에서

정웅모 에밀리오 신부 | 서울대교구 성미술 담당

신록의 계절 가운데서 5월은 성모님께 봉헌된 성모 성월입니다. 한평생 하느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충실하게 따라 산 성모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범이십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구세주 예수님의 어머니시며 신앙인의 어머니신 성모님을 특별히 공경하며 본받으려 노력합니다.

성당이나 성지 입구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성상이 성모상입니다. 성모 마리아상 앞에 머물며 기도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하느님의 뜻을 삶의 첫 자리에 두고 살았던 성모님의 깊은 신앙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많은 예술가들이 자신의 재능과 노력을 쏟아부으며 성화나 성상을 제작합니다. 특히 최봉자(레지나, 1942~.,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수녀는 수도 생활을 하면서 성모(자)상과 성가정상, 십자고상과 십자가의 길 등 다양한 성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동서양 조형 예술의 여러 형식을 두루 익힌 작가의 성상은 친숙하고 정겨운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유럽에서 들어온 성상들이 대부분이었을 때 그는 한국적 정서를 담은 교회 미술을 선보였습니다. 인간적인 따뜻함과 신적인 거룩함을 그의 성상에서 봅니다.

서울대교구청 정원의 <성가족상>(1995년)에는 아기 예수와 성모님, 성 요셉이 하나의 커다란 돌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 상 앞에 서면 일찍이 나자렛 성가족의 사랑과 경건함이 전해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제작한 <성모승천상>(2020년)은 위례성모승천성당 내부 정원에 있습니다. 그동안 작가가 만든 성모상은 대부분 깊은 명상을 하듯이 눈을 감고 있지만 이 성

상에서 성모 마리아는 천상의 하느님 나라를 바라보며 승천하고 있습니다.

“성상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혜 주시도록 청하면서 조각합니다.” “제가 만든 성모상을 보고 사람들이 성모님이랑 잘 만나게 해 주세요.”라며 성상을 만든다고 작가는 말하였습니다. 그가 만든 모든 성상 안에는 하느님께 대한 굳은 믿음과 사랑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최봉자 수녀의 성상은 전국의 여러 성당과 수도원, 성지와 교회 기관에 있으며 서울대교구의 아래 29개 본당에서도 아름답고 경건한 성상을 보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모승천상(2020년, 화강석, 위례성모승천성당)

가재울성당, 논현동성당, 대방동성당, 명일동성당, 목5동성당, 문래동성당, 불광동성당, 서초동성당, 석촌동성당, 성내동성당, 송천동성당, 쑥고개성당, 압구정동성당, 압구정1동성당, 연희동성당, 오금동성당, 오금성요셉성당, 옥수동성당, 용산성당, 용마산성당, 위례성모승천성당, 잠원동성당, 정릉동성당, 정릉4동성당, 종로성당, 청담동성당, 한강성당, 혜화동성당, 흑석동성당.(가나다순)



가톨릭교리상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서울주교와 함께 만드는 가톨릭 교리 상식 코너
「가톨릭교리상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벤트에
참여해 주신 분들의 질문으로 꾸며집니다.

< 성체조배에 대해 알려주세요! >



사진제공: cpbc 가톨릭평화방송 평화신문

오늘은 성체조배의 중요성과 방법에 대해 알려주시는 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님의 인터뷰 중 일부를 발췌하여 전해드립니다.

! '교구장님과 함께하는 성체조배'를 시작하신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성체조배의 중요성]

‘영성이 깊어가는 교회’의 모습을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도 중요한 길음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탁월한 기도 중 하나가 성체조배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체는 하느님의 현존이기 때문입니다. 대 데레사 성녀께서는 “주님께서 성체 안에 변장해 계신다.”라고도 하셨습니다. 기도가 하느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자 대화라는 것을 생각해본다면, 우리가 성체조배를 통해 그 성체 앞에 대면하는 것 자체가 큰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실제적으로 현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 다른 기도와 비교해서 성체조배만이 갖는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혼자서 묵상 기도나 관상 기도를 할 때는, 바쁘게 활동하다가 갑자기 눈 감고 성호 긋는다고 해서 하느님 현존을 바로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마음을 모으

기 위해 깊은 잠심이 필요하며,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느님 현존 앞에 머무르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체조배는 우리가 마음이 들떠 있더라도 성체 앞에 나아가는 순간 하느님 현존 앞에 바로 대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의 준비가 얼마만큼 잘 되고 못 되고를 떠나서 성체조배가 시작되는 순간, 이미 하느님 현존 앞에 머무르기에 바로 깊은 기도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체조배는 아주 탁월한 형태의 기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거나, 기도에 집중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교우가 종종 있는데, 짧은 시간에도 조배하면서 힘을 얻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많은 교우들이 오늘날 참 바쁘기 때문에 조용하게 기도할 시간을 내기가 어려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추천해 보고 싶은 방법 중 하나는 조금 시간을 내어서 감실 안에 계신 성체께 잠깐이라도 문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5분이라도, 혹은 10분이라도 짧은 시간 안에 잠깐 성체조배를 하고 직장에 출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저녁에 회사 일정이 끝나고 회식이 있었기에 반주 한잔을 했다 하더라도, 아주 무례한 상황이 아니라면 감실 앞에 잠깐이라도 들러서 조배를 하고 가실 수 있습니다. 따로 현시된 성체 앞에서 하는 조배가 아니더라도, 또 짧은 시간에 잠깐 하는 조배라도 감실 안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뵙는 성체조배는 모두 성체조배고 탁월한 형태의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전체 인터뷰는 ‘가톨릭튜브’에서
영상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매월 첫 목요일 8시, 주교좌 명동대성당에서
‘교구장님과 함께하는 성체조배’가 거행됩니다.

한국 천주교회 통계(2021) 발행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가 발행한 「한국 천주교회 통계 2021」에 따르면, 2021년 12월 31일 현재 한국 천주교회의 신자 수는 5,938,045명으로 인구대비 1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당 수는 1,779개이며 성직자 수는 총 5,626명으로 집계 되었습니다. 수도자 수는 총 11,790명으로 남자 수도자 1,625명, 여자 수도자 10,165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교회의 홈페이지(<https://cbck.or.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정을 위한 기도

하느님 아버지
저희 가정을 사랑으로 보살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정의
당신께서 주신 참된 기쁨과 평화를 간직하고
인내와 친절로써 이웃에게 선행을 베풀게 하소서.
또한 살아계신 주님을 모신 작은 교회로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교구청알림

서울대교구 대침묵 피정

주제: 내 안에 나야, 이제는 웃어도 돼
때: 5월20일~22일 / 피정지도: 문종원 신부
문의: 010-6224-2920 강명인

갤러리1898 전시안내 / 문의: 02)727-2336

안영경 도예전: 1전시실
탄신 100주년 김수환 추기경 한지 사진전: 2전시실
국예성 매듭전: 3전시실
전시일정: 5월18일(수)~23일(월)

2022 빈민사목위원회와 공단기가 함께하는 '함께 꾸는 꿈(CUM) 희망 프로젝트' 교육생 모집

대상: 서울 거주 19~34세 청년 중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의 가구원, 한부모·조손가족 보호대상, 자립준비청년 등 / 교육과정: '공단지' 공무원 전직력 온라인 강의 지원
신청기간: 4월18일~5월31일 / 문의: 02)777-7261

사목국 영성심리상담교육원

1) 2022년 교육프로그램

모집과정: 온라인-2022년 영성심리 아카데미(영성심리특강, 기도동반, 영성심리독서모임, 피정 등), 대면-가톨릭영성심리 치유와 봉사 수료과정(기본과정) 상세안내 홈페이지 참조 / 02)727-2126(tcpc@seoul.catholic.kr)
신청: 홈페이지(<http://seoultcpc.catholic.or.kr>) - 교육신청

2) 서울가톨릭상담센터 개인심리상담

심리정서(불안, 우울, 성격), 대인관계 어려움, 직장 및 학교 부적응, 가족관계, 진로상담
곳: 서울대교구청 별관 가톨릭상담센터 B106호(명동), 노동사목회관(보문역), 노원성당, 삼성산성당, 천호동성당, 화곡본동성당
문의(예약): 02)727-2139(월~금 10시~18시) / 전화상담: 02)727-2137(월~금 10시~17시)

서울대교구 청년생활성가밴드 '유빌라떼' 단원 모집

모집 분야: 보컬, 드럼, 키보드, 기타, 베이스
지원문의: 02)762-5071, 2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청년부

사회교정사목위원회 후원회를 위한 미사

때, 곳: 5월16일(월) 10시30분, 광장동성당
문의: 02)921-5094, 010-3732-5093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프로그램 안내

1) '슬픔 속 희망찾기' 유가족을 위한 5월 유가족 미사
때, 곳: 5월21일(토) 10시 목주기도·10시30분 미사봉헌, 영성센터 경당 / 집전: 차바우나 신부
문의: 02)727-2495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2) 마음돌봄 경험 교육 프로그램
때: 5월23일(월) 10시~17시 / 인원: 15명 모집(선착순)
곳: 가톨릭회관 205-3호 / 문의(신청): 02)727-2498

특별 미사와 한국 천주교회사 기초과정 접수 안내

1) 시복시성 기원미사

이달의 하느님의 종 '이조여 요셉'
때: 매달 셋째주(화) 5월17일 오전 10시(174회)
곳: 절두산 순교성지
문의: 02)2269-0413 순교자현양위원회

2)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기념미사

때, 곳: 5월28일(토) 오전 11시,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 B3 콘솔레이션 홀 / 집전: 염수정 추기경, 정순택 대주교, 손희송 총대리 주교와 교구 사제단
문의: 02)3147-2402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

3) 한국 천주교회사 기초과정

주제: 한국 천주교회사, 그날의 시간을 돌아보다
강의: 이현수 신부(순교자현양위원회 사무국장)
때: 6월3일~7월1일 매주(금) 19시부터(주말 성지순례 1회 포함, 총 6회) / 회비: 1인 5만원
접수: 순교자현양위원회 홈페이지(www.martyrs.or.kr)
문의: 02)2269-0413 순교자현양위원회 사무국

민족화해위원회

1)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내 마음의 복날 본당 갖기 미사)
때, 곳: 1318차 미사 5월17일(화) 19시, 명동대성당
이번 주 기억할 본당: 평양교구 중강진 본당, 영흥 본당
미사후에는 한반도 평화와 복날본당을 위한 목주기도를 봉헌합니다 / 문의: 02)727-2420
2) 유니타스 성가대 단원모집 / 문의: 02)753-0815
민족의 화해와 일치, 복날의 57개 본당을 기억하며 드리는 미사에 함께 할 분을 모집합니다
대상: 60세 미만(상시모집)
미사: 매주(화) 19시, 명동대성당 / 연습일: 매주(화) 미사 전
3) 유니타스 엔젤스 합창단원 추가모집 / 문의: 02)753-0815
노래로 하나됨을 이루어 나갈 어린이 합창단원을 모집합니다
대상: 9세~12세 어린이(종교 무관, 상시 모집)
오디션: 자유곡 1곡 / 연습일·장소: 매주(토) 11시~14시, 교구청별관 6층 소성당(명동)

'가톨릭신자앱'의 이름을 공모합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본당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인 차세대 본당양업시스템을 개발 중입니다. 또한 새로운 양업시스템에 맞춰 교우들께서 직접 사용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 가칭 '가톨릭신자앱'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톨릭신자앱'을 통해 기도 생활, 성지방문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가톨릭페이 기능을 통해 앱으로도 헌금과 교무금을 봉헌하고, 미사 지향 신청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우분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드리는 것은 물론 사무실을 방문하셔야만 처리할 수 있었던 일부 업무도 앱으로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예정인 '가톨릭신자앱'. 이 '가톨릭신자앱'에 교우 여러분께서 직접 이름을 지어주세요.
공모 기간: 5월15일~6월5일 / 선정인원 및 상금: 1인 30만원
참가방법: 굿뉴스 홈페이지 홍보마당 -> 홍보게시판에서 참가(<http://code.catholic.kr/MXo3im>)
문의: 02)2269-0419(내선 3번) 전산정보실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삼성산 성령 수녀회	수시	관악구 호암로 454-16(신림동)	010-3551-5877
살레시오회	매월 네번째(토) 14시	수도원(대림동)	010-2042-8353 심재현 신부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5월29일(일) 9시	서울 분원(장충동)	010-8353-2323
성 베네딕도회 요셉 수도원	5월28일(토) 14시	본원	010-4241-1210 성소 담당자
작은예수수녀회	수시	수녀원(군자동)	010-8939-7970
천주교서울교구제천교회	수시	신학원(한남동)	010-2749-4596, 02)749-4596
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5월21일(토) 14시	수도원(개화동)	010-3800-1579
한국외방선교수녀회	5월22일(일)	서울 분원(보문로 27길 20)	010-9353-1773 노아 수녀

모임

토아올람 후원회 화요 치유 피정

때, 곳: 매주(화) 12시30분~16시, 가톨릭회관 7층
담당: 김중국 신부 / 문의: 010-5514-4077 회장

사랑의 씨앗 수녀회 '씨앗 3040 피정' / 문의: 041-733-2992

대상: 30대~40대 남녀 젊은이 / 회비: 3만원
때, 곳: 6월5일(일)~6월(월), 씨앗 영성의 집(논산)

청년 기도모임 '잠시멈춤' / 문의: 010-7197-1390

때: 매월 넷째주(수) 19시 / 대상: 만 35세 이하 청년
곳: 착한목자수녀회(주최, 전철 2·7호선 건대입구역)

예수고난회 명상의 집 대침묵 피정

내용: 공동기도수행, 강의, 영적지도 / 문의: 02-990-1004
때, 곳: 5월27일~29일·6월24일~26일(2박3일), 명상의 집(우이동) / 개인 피정(수시), 위탁 피정 별도 문의

수도 전통에 따른 렉시오 디비나(성독)

때: 6월8일·15일·22일·29일 매주(수) 14시~16시 / 회비: 10만원
곳: 씨앗영성센터(서울) / 지도: 허성준 신부 외
문의(접수): 010-4731-2468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2022년 DMZ 평화의 길 도보순례

대상: 초3학년 이상 누구나(총 100명, 선착순 접수)
때, 곳: 1차 5월21일(토)~22일(일)·2차 6월4일(토)~5일(일) 1박2일, 민족화해센터 / 회비: 5만원
문의(접수): 031-941-2766(www.pu2046.kr) 민족화해센터

초대합니다

강우일 주교와 함께 걷고 듣는 제주이야기
내용: 성지순례, 말씀여행, 참여 프로그램
대상: 개인, 단체 누구나(구역반장, 단체는 맞춤 피정 가능)
때, 곳: 6월17일~19일·9월23일~25일·10월18일~20일·11월18일~20일·12월5일~7일, 제주 성 이시돌 피정의 집 / 문의: 010-5100-3845 한국통합사목센터

제주 성 이시돌 자연 순례 피정

천혜의 아름다움을 지닌 섬 제주에서 갖는 평화로운 섬과 재충전의 순례 피정
대상: 개인, 가족, 일행, 본당 단체 구반장
때: 5월22일~24일, 5월26일~28일, 5월30일~6월1일, 6월4일~6일, 6월13일~15일, 7월3일~5일
문의(접수): 02-773-1455, 064-796-4182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순례 피정
문의(접수): 02-773-1463, 064-756-6009

자연순례	5월23일~25일, 6월20일~22일
성지순례 (추자도 포함)	5월28일~31일, 6월4일~7일, 6월12일~15일, 9월3일~6일

교육

수제 목주 전문반 수강생 모집(가톨릭목공예)

카페: cafe.naver.com/cmc04 / 문의: 010-5234-5044

미국가톨릭사립학교 학생 모집

문의: 02-2258-8983(oakinternational.co.kr)
주최: 그리스도의 레지오 수도회 운영 학교법인

9월 정규입학 모집	초5~고1 / 단기 1년 또는 장기
7월·8월 여름캠프 모집	초4~중2 / 미국 4주·캐나다 2주

어르신 선종 교육 '죽음-웰다잉(선종) 강의·미사

때: 5월24일(화) 10시~13시 / 문의(접수): 02-766-7370
곳: 노인복지위원회 성모노인쉼터(주최, 종로3가 창덕궁 앞)

삼성산 피정의 집 성령세미나

때, 곳: 5월28일(토)·6월4일(토) 13시~22시, 삼성산 피정의 집 대강당 / 문의: 02-874-6346 삼성산성령수녀회·사랑의성령봉사회

원어로 읽는 성경 기초반(히브리어·히랍어)

때, 곳: 7월부터 1년간 19시30분~21시30분, Zoom 수업
(목) 구약(수) 신약 / 회비: 3개월 30만원
문의: 010-4598-6912 김성태 신부(프란치스코회)

'오르프'와 함께하는 섬, 움직임(리듬음악을 통한 몸의 자유) / 문의: 02-924-3048

대상: 39세 이하 청년 직장인(10명 이내) / 카톡ID: k_off
때, 곳: 5월24일~6월14일 매주(화) 19시30분~21시, 성골롬반외방선교회(주최, 전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2022년 춘계 한국가톨릭문화연구원 영유아 교육분과 세미나

주제: 영유아 삶의 복음화 / 축사: 유경춘 주교
때, 곳: 5월25일(수) 14시~17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
참석자분들께 기념품 증정합니다
문의: 010-6209-6593 전중정

돈보스코미디어스쿨 신입생 모집

과정: 고등과정(17세~24세) / 문의: 02-833-0930
검정고시반, 독서, 사회, 영어, 체육, 미디어, 바리스타, 제과제빵, 미술, 사진 / 남자기숙사 운영
곳: 돈보스코 미디어스쿨(양천구 신월3동)
홈페이지: http://db-mediaschool.kr

모집

재속 맨발 가르멜회 서울 십자가의 성 요한 공동체 회원 모집 / 문의: 010-3217-8235

대상: 만 55세 이하 전전성사 받은 분 / 첫모임: 6월13일

은평성모병원 자원봉사자 모집

분야: 안내봉사 / 주 1회 3시간, 요일 선택
대상: 25세~60세 이하의 심신이 건강한 남녀
문의: 02-2030-3456 자원봉사센터

미사

새천년복음화학교 후원회 월례미사 / 문의: 02-753-8765

때, 곳: 5월19일(목) 12시, 가톨릭회관 3층

살레시오와 꿈 후원회 월례미사

지도: 심재현 신부 / 문의: 02-828-3500
때, 곳: 5월23일(월) 11시, 가톨릭회관 2층(205-3호)

사랑이 피는 기도모임 월례미사

때, 곳: 5월16일(월) 14시~15시30분, 가톨릭회관 205-2 / 내용: 고해성사, 미사, 성체조배
문의: 02-6253-3373, 010-8360-3700

성서가족 열린미사(역삼동성당)

청년성서모임 40대, 50대 성서가족들이 흥인식 신부와 함께하는 찬양미사 / 문의: 010-5229-9425
때: 매월 셋째주(일) 5월15일 15시
곳: 역삼동성당 및 온라인 / 유튜브 '열린미사' 검색

생명이신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곳: 도미니코 수도회(주최, 강북구 수유동)

성체미사 / 매주(수) 19시30분	문의:
성토마스 성체신심회 / 넷째주(토) 10시	010-5818-8431

인문

성라파엘상담소

심리적 어려움(분노·우울·불안·부작용), 대인관계의 어려움이 있는 만 19세~만 34세 청년상담지원(예산소진시 마감) / 석사 이상의 전문상담사 진행
때: (월~일) / 문의: 070-4248-7573, 010-3008-4627

성빈센트정신분석상담센터

대상: 성인, 청소년, 아동, 부부, 집단상담
내용: 대인관계 갈등, 성격문제, 우울, 강박, 정서불안
곳: 성북구 아리랑로62 / 문의: 010-4261-1113
차영임 수녀(성빈센트드물자비수녀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중독 중점치료(알코올·마약·도박·인터넷 게임 등),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야간진료(화) 18시~20시30분
곳: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 홈페이지: www.karf.co.kr

대천해수욕장 요나성당(리조트) 운영

대천해수욕장 관광 및 휴양, 개인 피정, 매일미사 대전교구 성지순례를 위한 숙소로 이용 가능
대천해수욕장 요나성당 인근 성지: 갈매목 순교성지, 서릿골 성지, 청양 다락골 성지 / 문의: 041-934-7758
인터넷 검색창에 '요나성당 연수원' 검색
4월~5월(두 달)동안 7월~8월 성수기 예약시 15% 할인 적용 / 홈페이지: https://yonaresort.modoo.at

전·진·상 영성심리상담소 / 문의: 02-726-0700

응학파에서 보는 꿈과 내적치유	6월7일·6월14일·6월21일(화) 14시30분~16시30분(3주) / 강사: 김영희(경기대학교 명예교수, 융학파분석가)
전문 심리상담	부부 및 가족상담, 개인상담·정서불안, 우울, 분노, 의사소통의 어려움

직원모집

서울성심간병인회 남녀 간병사 수시 모집

곳: 서울삼성, 서울성모, 여의도성모, 은평성모병원
근무내용: 환자에게 간병 제공(24시간 병원 상주) / 1522-9415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경찰사목위원회 직원 모집

분야: 선교사 교육 운영 및 사무행정·회계(계약직, 육아휴직 대체) / 근무기간: 6월~2023년 11월(18개월)
대상: 견진을 받은 교우로 사무행정 및 회계업무 가능자 /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 사본
5월22일(일) 18시까지 이메일(catholicpolice1@seoul.catholic.kr) 접수 / 문의: 02-742-9473

신사동성당 관리직원 모집

분야: 관리직원 1명(계약직) / 문의: 02-383-6283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된 신자로 방화관리 및 시설물 관리 자격증, 1종 운전면허자격증 소지자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5월20일(금)까지 방문·우편(우 03437, 서울시 은평구 은평로7) 접수 /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개별 연락)

신정3동성당 사무장·주방근무자 모집(계약직)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개별 연락) / 5월20일(금)까지 방문·우편(우 08053,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7길 60-10) 접수
마감일 전 채용 가능 / 문의: 02-2060-8051

사무장	세례받은 지 3년 이상된 신자로 사무행정·회계 업무
1명	·PC 가능한 분 / 추후 정규직 전환 가능, 경험자 우대
주방근무자	세례받은 지 3년 이상된 신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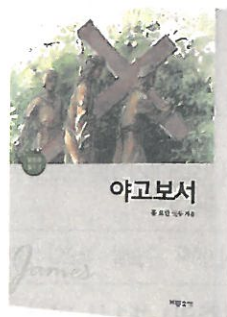


신간

그리스어야 놀자

김창락 지음
분도출판사 | 744쪽 | 3만8천원
문의: 02)2266-3605

당연한 말이지만, 그리스어 신약성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스어 공부가 필수적이다. 『그리스어야 놀자』는 신약성서의 어휘를 모두 다루면서도 독특한 암기법을 채용해 누구나 쉽게 그리스어 어휘를 학습할 수 있게 하며, 흥미로운 삽화들은 학습의 재미를 더해 준다.



신간

야고보서

홍요한 지음
기쁜소식 | 144쪽 | 1만원
문의: 02)762-1194

신약성경 중 야고보 서간의 배경과 내용 해설을 바탕으로 신자들이 개인 묵상, 혹은 구역 모임 교재나 본당의 성경 공부 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각 과의 나눔 및 묵상을 통해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신간

아버지의 그림자

안도브라친스키 지음
도서출판 백난로 | 592쪽 | 2만원
문의: 02)572-1943

폴란드의 작가 안도브라친스키가 소설 형식으로 재구성한 요셉 성인의 이야기다. 요셉 성인은 '믿는 이의 모습으로 묘사되고, 그가 예측할 수 없는 하느님의 부르심 앞에 갑자기 서게 되는 고뇌의 모습을 그렸다. 이를 통해 하느님 뜻에 순응하는 모습, 성숙해 가는 신앙이 잘 묘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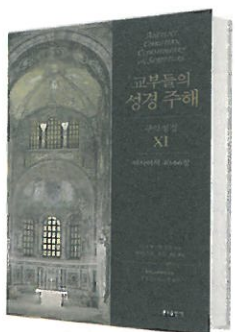


신간

생명의 영, 그리스도를 만나다
요한복음

박승룡 지음
기쁜소식 | 380쪽 | 2만3천원
문의: 02)762-1194

신약성경 중 요한복음의 말씀을 공부함으로써 신앙을 가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만나는데 도움을 주고, 어렵지만 가치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대해서 안내한다. 개인 혹은 그룹으로 신약성경의 요한복음을 공부할 때 도움이 되도록 구성한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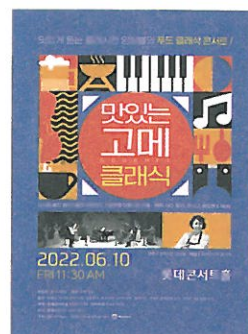


신간

교부들의 성경 주해
구약성경 XI
이사야서 40-66장

마크 W. 엘리엇 엮음
분도출판사 | 520쪽 | 4만8천원
문의: 02)2266-3605

29권으로 구성된 교부들의 성경 주해 중 11번째 책이다. 교부들이 해석한 대로 이사야서는 그리스도론적이기보다는 훨씬 더 구원론적인 메시지를 제시하고 있어, 이 책은 독자들이 하느님의 심판과 구원을 더욱 깊이 이해하도록 이끌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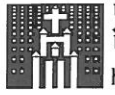
음악회

클래식 & 흥신애
맛있는 고메 클래식

입장료: 전석 3만원 / 문의: 02)444-4172
인더파크 티켓이나 롯데콘서트홀 예매 사이트에서 클래식한 회원 할인 20% 권증을 선택 구매 후 관람 당일 서울주보나 모바일의 본 안 내문 지참시 주보 1부로 4명 20% 할인

요리와 음식으로 만나는 클래식! <맛있는 고메 클래식>이 6월 10일(금) 11시 30분, 롯데콘서트홀에서 있다. 현악 체임버 오케스트라 클래식 앙상블의 연주와 유명 요리 연구가-클래식 전공자인 흥신애의 해설을 통해 음악가들의 인생 속 음식 이야기와 음악 이야기를 흥미롭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다.

제2229(성 바오로 사도 회심 축일)



연회동성당

http://www.yeonhui.or.kr

03727 서울시 시대문구 연회로 64-14

본당사무실 : 323-4450~1, 4456 FAX : 336-2233

주임신부 : 류시창(베드로)

보좌신부 : 이철규(아우구스티노)

연령회장 : 지병국(바오로) 010-5512-4450

주일 미사	• 토요일 : 오후 3시 (초등부, 오후 6시) • 주 일 :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 30분 (중고등부·반대), 오전 11시 (교중) 오후 6시 (청년 20, 청년 30)	유 아 세 례	홀수 달 첫째 주일 오후 4시 30분
평일 미사	• 월요일 : 06시 화요일 : 10시, 19시 수요일~금요일 : 06시, 10시 토요일 : 06시	혼 인 면 담	매 월 셋째 주 일 오후 3시
		성모신심미사	매 월 첫째 토요일 오전 10시

◎ 예비신자 입교식 : 6월 5일(주일) 11시 미사

교리반	교리 시작 날짜	장소
수요반	6월 8일(수) 오후 8시~	교육관
주일반	6월 12일(주일) 오전 9시~	304호

※ 7월 10일(주일)까지 모집합니다.

◎ 성소후원회 미사 : 5월 17일(화) 오전 10시

※ 성소후원회 회원분들 회비는 사무실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을드레아

일시 : 5월 24일(화) 오전 10시미사 후 304호

◎ 병자영성체 : 5월 27일(금) 10시 미사 후

◎ 남성총구역 족구대회

일시 : 5월 21일(토) 오후 2시

서대문청소년수련관 실내체육관

※ 참석을 원하시는 형제님들은 사무실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번외경기로 여성피구대회도 있습니다.

◎ 초등부주일학교 봄소풍

일시 : 5월 28일(토)

장소 : 월드컵공원

문의 : 초등부교감 (010-5377-8909)

※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청년 에니어그램 일일피정

에니어그램 테스트를 통해 주님의 모습을

나와 타인 속에서 발견하는 피정

대상 : 연회동성당에서 활동중인 20~30대 청년

일시 : 6월 12일(주일) 오후 1시~6시

참가비 : 15,000원

신청 & 문의 : 청년회장 (010-5125-8040)

◎ 청년 한푸름성가대 단원 모집

매 주일 오후 6시 청년미사를 찬양으로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들 단원을 모집합니다.
연습일시 : 매 주일 오후 4시

문의 : 미카엘라 단장 (010-3160-2988)

◎ 청년레지오(셋별 Pr.) 단원 모집

대상 :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 청년

회합(기도) : 주일 오후 7시 30분/ 207호

문의 : 안나 단장 (010-9524-8988)

◎ 5월 14일(토) 어린이미사부터 헌금봉투를 다시 사용합니다. 주일헌금 봉헌 시 헌금봉투에 넣어서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 오늘은 청소년주일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교무금 책정 현황 (2022. 5. 8)

총세대	책정세대 (책정율)	납부세대 (납부율)	2021년 책정율	2021년 납부율
2,095	777 (37.1)	715 (34.1)	43.8%	42.5%

교무금계좌번호	우리은행	137-04-110875
---------	------	---------------

※ 교무금 자동이체 신청해서 납부 바랍니다.

※ 교무금은 반드시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당유지보수기금 (2022년)

누 계 32,337,100원

◎ 감사헌금(5월 2일~8일)

박옥연 일백만원 황금출 오만원

익 명 일십만원 이행우 일십만원

◎ 우리들의 정성(부활 제4주일)

교무금 13,395,000원

주일헌금 4,777,500원

성소주일 2차헌금 2,403,000원

입당	138	봉헌	511	성체	165, 174, 501	파견	134
----	-----	----	-----	----	---------------	----	-----



저의 임금이신 하느님 영영세세 당신 이름을 찬미 하나이다